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20> 공부는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오늘 이야기할 단락을 보니 지난해 번역 출판한 <거드름 피우는 우마왕>이란 제목의 어린이 동화책 내용이 생각난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서유기>에 나오는 '우마왕'인데 어느 날 그는 검술을 배우려고 무아(無我) 선사를 찾아가고, 검술의 달인이었던 무아 선사가 제자로 받아들여 주마왕은 크게 기뻐하며 예를 올린 뒤에 물었다.

"스님, 검법을 다 배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공부하면 십년은 걸린다."

"앗! 십 년이나요? 다른 일도 하면서 배우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게으름을 피우면서 공부하면 이십 년은 걸릴 거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연습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삼십 년도 더 걸릴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화두공부란 선지식의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믿음'과 '원력'과 '의심평어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간절하게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뜰수록 흐트러지지도, 머리가 무거워져 몽롱해지지도 않는다. 선(禪)도 뛰어넘고 악(惡)도 뛰어넘으며 무기(無記)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생각을 깨치지 못할까 근심할 일도 없다. 간절할 마음 이것 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게

게 되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고 불러 물으셨다.

"네가 출가하기 전에 거문고를 타는 일이 있느냐?" "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거문고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날카롭게 끊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너무 느슨하게 해 놓으면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소리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나올 수 있느냐?" "줄을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해 놓아야 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그렇다. 공부도 그와 같다. 공부를 너무 서두르면 뜰수록 병이 나기 쉽고, 너무 늦추면 게을러져서 공부에 진전이 없다. 그러나 공부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된다. 평소애 꾸준히 정진해야만 한다."

소문나는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 날부터 거문고의 줄을 고르듯이 공부를 꾸준히 해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잡아함경> 9권 <이십이경(二十偈耳經)>에 나온다.

## 간절할 때 공부할 마음 생겨 너무 조급하면 들떠 병 초래

여겨야 할 말이다. 간절할 마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선가귀감> 18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工夫如調絃之法 緊緩得其中  
勤則近執着 忘則落無明 惺惺歷歷 密密綿綿

공부는 마치 현악기의 줄을 고르듯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게 해야 한다. 공부에 너무 애를 쓰면 집착에 가깝고 공부를 잊어버리면 어두운 세상에 떨어진다. 마음이 깨어있는 또렷한 의식으로 끊임없이 차근차근 공부를 쟁겨가야 한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문나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공부에 진전이 없고 깨치지 못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

서산 스님은 말한다.

"거문고 타는 사람은 거문고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아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화두 공부도 이와 같다. 공부에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 병이 생기고 공부를 잊어버리면 캄캄한 귀신 굴에 들어가게 된다. 공부를 너무 늦추거나 서둘지 않는 가운데 요묘한 깨달음이 있다."

화두 공부를 할 때에는 먼저 공안을 점검하고 의심이 생기면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화두를 쟁겨가야 한다. 공부하는 마음에 쓰면 집착에 가깝고 공부를 잊어버리면 캄캄한 귀신 굴에 들어가게 된다. 공부를 너무 늦추거나 서둘지 않는 가운데 요묘한 깨달음이 있다."

역지로 힘을 써서 화두를 쟁기는 것은 공부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 움직이든 가만히 앉아 있던 의심하는 공안이 풀리지 않게 하여,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꾸준히 공부해 나아가면, 그 가운데 공부의 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 원문 스님(송광사 인월암)

### 행복동 사람들

시간은 가는 것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아니 누가 종이를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누가야?

부장님,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스럽게요.

대리님, 저번에 부탁 드린 보고서 자료 좀 주세요. 이젠 다 됐죠?

아니요? 벌써 2주째예요. 아니요?

아, 맞다! 뭐가 아쉽더라? 그럴 짓고 싶었네. 다음 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배님, 그 습관 아직 못바라보셨습니까? 아직 '나중에'예요?

저번엔 절고생시켜서서더니...

안된다고...

하하하. 걱정마세요. 남은 게 시간이지요. 세상 일이 오늘 안될 수도 있고 그럼 내일 하는 거고요. 안 그래요?

허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대리님은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시간은 오는 게 아니라 흘러가지만 하죠. 단 1초 후에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 선남선녀(善男善女)

"오늘 선남선녀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선남선녀(善男善女)입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착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지요. 불교사전 뿐만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이 같은 뜻으로 선남선녀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남선녀는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선남자선여인(善男子善女人)'의 줄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선(善)은 선인(善因)이다. 지난 세상에 지은 선사공덕(善事功德)이 현세에 나타나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믿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생(現生)에서 불법을 믿고, 선을 닦는 남녀'를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명호를 듣고, 열반하는 남자와 여자'를 나타냅니다. 불교 집안에서는 보통 '죄악이 많은 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고, 열반하면 곧 선남자·선여인이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임에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 '신사 숙녀, 여러분!' 대신 '선남선녀, 여러분!' 하면 어떨까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5)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41강 <기신론>도 <금강경>과 같은 얘기를

선가가 다가오면서 또 '이미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어디 정지판만일까, 세상이 온통 이미지(虛妄)로 넘쳐나고 있다. 매스컴과 권력,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양상은 더욱 극성을 띠고 있다.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 없어졌고, 짝퉁이 진짜를 뺏아, 창작과 표절을 가르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상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불교가 고구정념 깨우치고자 하는 바이자, 동서양의 오래된 전통이 공히 가르치는 삶의 지혜이다.

#### 1. 이미지의 그물로서의 세계(三界唯識)

우리가 보는 세상, 즉 이미지들은 육망의 혼탁이고, 자아의 그림자이다. 불교는 그 부영의 이미지(相)에 붙잡히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거듭거듭 타이른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그것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숲 속에서 동물들이 우르르 달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사슴이 달리니 토끼도 달리고, 말이 달리니 호랑이가 달렸다. 코끼리며 공룡까지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가

숨을 돌린 다음, 왜 이렇게 달리는지 진원지를 찾았다. 다람쥐 한 마리가 최종적으로 일어서서,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찾아가보니, 거기 망고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게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라, 보이는 이미지, 전하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눈, 기(氣)의 교감으로 그것들을 허파, 간파(看破)해야 한다. 부처님의 '바른 눈(正眼)'이 왜 우리네와 달리 이마 한 가운데 박혀 있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주인공(主人公)의 화두 서암화상은 말한다. "서암 이놈, 알지! 지금부터는 절대 남의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 알겠냐?" 스스로 다그치고 다시 스스로 다짐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묘한 일인극의 화두가 전해주고자 하는 바는 명백하다. 더 이상 거대한 환상에 속아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이다.

그래도 남한테 속지 않기는 쉽다. 자신에게 속지 않기가 훨씬 어렵다. '인'으로 인간은 자기 욕망과 편견의 노예이고, 또한 '법'에서 온 관습과 의견에 지배되는 존재이다. 거기 무슨 '나'가 있고, 거기 무슨 '자유'가 있는가.

그래서 회평반조,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결정적이고, 명상과 좌선이 그토록 절실한 것이다. 불교는 역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기보다, 더욱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종교이고, 철학이다.

#### 2. 왜 여래를 눈으로 볼 수 없는가

<금강경>의 눈은 말한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佛告須菩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혜능은 이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었다. 如來欲顯法身故, 說一切諸相皆是虛妄. 若悟一切諸相虛妄不實, 即見如來無相之理也.

"여래가 법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일체의 제상(諸相)이 모두 허망(虛妄)타고 설한다. 만약 일체의 제상이 허망할 뿐, 알맹이가 없는 것을 깨닫는다면, 즉, 그는 여래가 무상(無相)이라는 이치를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믿는 그 '여래'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가지 있다고 믿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한다. 그것은 재산이나 지위, 권력 등이든바 3P(Property, Prestige, Power)와는 다른, 미학적 정신적 가치에 해당한다.

여기 함정이 있다.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더 고귀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3P(Property, Prestige, Power)와는 다른, 미학적 정신적 가치에 해당한다.

여기 함정이 있다.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더 고귀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3P(Property, Prestige, Power)와는 다른, 미학적 정신적 가치에 해당한다.

을 기치로 내거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피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작게는 '마평회'의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저지르는 설교와 강요의 미시적 폭력들을 섬세하게 경계해야 한다.

불교는 진리를 '우상'으로 권력화하고, '소유'로 소외시킬까봐, 여래를 회망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를 보자기에 숨겨버린다. 이 "쓰고 지움(sous rature, under erasure)"이아말로 <금강경>이 베푸는 위대한 노파심이다.

6장에, 그 경약과 의혹이 이어진다. "대체 이 말을 경건한 불교도들이 어떻게 믿는가?"

어쩌거나 사다리는 치워졌다. 이제 무엇으로 우리는 '그'를 만날 것인가.

난감한 우리 앞에, 문득, 아부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且道, 即今住坐臥是甚麼, 休睡. 身在海中休覓水, 日行巖上莫尋山. 鶯吟燕語皆相似, 莫問前三與後三."

之相. 若見諸相等者, 遮離色觀空也. 恐問相是虛妄, 又別求無相佛身, 故云相即非相. 便是如來. 不唯佛化身無相, 是如來所見一切相皆無相即如來也. 故<起信>云,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 即是如來平等法身.

"비단 부처의 몸이 무상(無相)일 뿐만 아니라, 일체 법부와 성인들에 대해, 이래저래 설정(有爲)한 이미지(相)들은 모두 환상이고 가짜이다. 모두가 망념(妄念)에 의해 불러나온 의식의 변형물이기 때문이다. 망념은 본시 실체가 없는데, 그 변형물에 무슨 가치를 부여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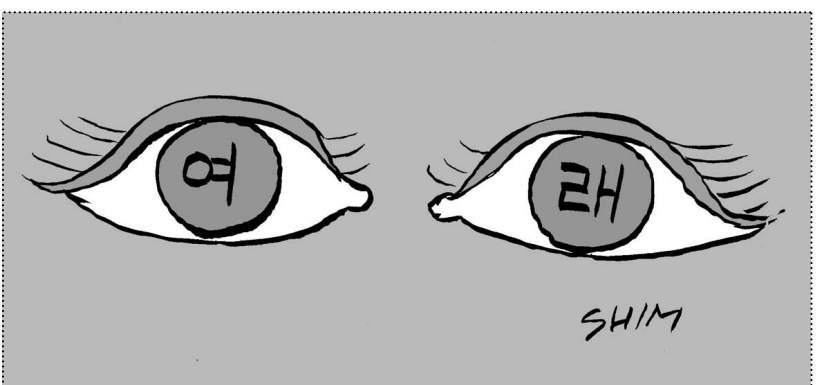
"그래서 <기신론>은 말한다. '일체의 경계(境界)는 오직 망념에 의해서 생긴 차별(差別)이나 만약 심념(心念)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의 상(相)이 없어진다.' 제상(諸相)이 결국 실질 구분이 없이 마천가지라는 것을 볼 때, 책을 차단하여 그것을 떠나 공을 보기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 상(相)이 허망하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 무상(無相)인 불신(佛身)을 따로 구할까봐, 다시 말했다. '상이란 즉 상이 아니니, 그래서 여래이다.' 부처의 화신(化身)만이 무상(無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래가 본 일체상이 모두 무상인 즉, 그래서 진정 여래라고 한다. <기신론>은 말한다. '지금 말하는 각(覺), 즉 깨달음이란 심체(心體)가 넘(念)을 여의 것을 일컫는다. 넘(念)의 상(相)을 떠나면 허공계와 같으니, 이것이 여래의 평등법신(平等法身)이다.'"

- 하여, "여래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섭섭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여래는 늘 여기 있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행주좌와 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로 믿고 있는 이 연대 속에 여래가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 세상은 온통 이미지로 범람



이 논제는 <금강경> 전권을 통해 계속 반복 연주된다.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다. 이 테제는 해체론자 데리다와 하이데거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게 <금강경>은 여래의 이름을 썼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믿는 그 '여래'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가지 있다고 믿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한다. 그것은 재산이나 지위, 권력 등이든바 3P(Property, Prestige, Power)와는 다른, 미학적 정신적 가치에 해당한다.

여기 함정이 있다.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더 고귀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3P(Property, Prestige, Power)와는 다른, 미학적 정신적 가치에 해당한다.

#### 3. 기신론도 <금강경>과 같은 소식을

함해득론은 이 설법이 또한 <기신론(起信論)>의 소식임을 증거했다. 좀 까다롭지만, 인용 번역하여, 한문 불교의 읽는 맛을 제공하고자 한다.

說誑: 非但佛身無相, 但是一切凡聖, 依正有爲之相, 盡是虛妄. 以從妄念所變現故. 妄念本空, 所變何有. 故<起信>云, 一切境界, 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心念則無一切境界